

'제12회 광주국제아트페어' 28-31일 DJ센터

행복한 빛고을 미술시장... '아트광주21' 개막

국내의 동시대 미술시장의 흐름을 조망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됐던 미술시장의 변화를 이어나갈 '아트광주21'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복한 미술시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행사는 본전시 95개 부스로 운영되며, 15개국 70개의 국내외 전문갤러리(국내 56·국외 14)와 아트광주21 기획전 자체부스 25개로 구성됐다.

지역 및 국내외 화랑이 아름다운 작품을 선보이며, 아트광주 자체부스의 다채로운 기획을 통해 전통과 현대성을 겸비한 지역작가들의 의미있는 작품이 소개된다.

이와 함께 예술의 거리 프로젝트, 대인예술시장 활성화 사업, 광주 장애인 미술단체 참여 등 지역 문화예술행사와의 연계 부스운영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체 작가는 모두 535명으로 국내갤러리 참여작가 341명, 해외갤러리 참여작가 60명, 아트광주 자체기획전 참여작가 134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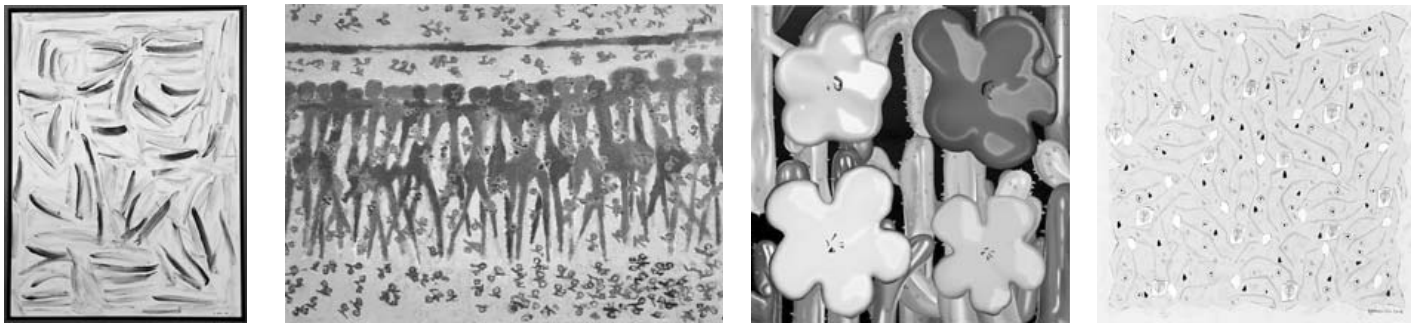
김창열, 김환기, 백남준 등 이미 고인이 된 작가들의 작품들을 비롯해 박서보, 이우환, 방해자, 신현국, 김명식, 이배 등 대한민국 미술계 원로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여진다.

아울러 내한 전시마다 높은 관심을 받았던 앤디 워홀, 데이비드 호크니, 무라카미 다카시, 필립 콜버트와 같은 해외 유명 작가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강연균, 강운, 박구환, 송필용, 오승윤, 이이남, 이정복, 정송규, 최영훈, 한희원, 황영성 등 호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더불어 미술시장에서 급부상 중인 강동호, 고차분, 이인성, 하루 K 등 신진 작가들의 작품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 내 원로작가를 소개하는 명품작가전과 인



데이비드 호크니 작 'Ink Test'

명품·블루칩 작가전, 라이징 스타전 등 선배 95개 부스·15개국 70갤러리 총 535명 출원



사진은 왼쪽부터 이우환작 '동풍', 김환기작 '사월의 행진', 필립 콜버트 작 'Flower Study From the Lobster Land Museum', 황영성작 '노란 소'

기작가 그룹의 블루칩 작가전, 비전 있는 청년작가 양성을 위한 라이징 스타전도 진행된다.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미술시장의 재생은 모두가 인식하는 '아트광주21'의 장기적 지향점이다.

'아트광주21'의 가장 큰 차별점은 기존의 작가부스 운영을 사무국 기획전 부스운영으로 전환, 지역 작가들의 아트광주 참여에 변화를 시도한 점이다.

자체부스 기획전은 모두 6개의 서로 다른 목적의 전시다. 아트페어를 통한 미술감상의 즐거움과 작품소장의 가능성을 목표로 준비됐다. 1가구 1작품을 목표로 '마음의 선물전'과 '행복한 그림전'을 제안, 정감 있는 지역 작가들의 미술품 컬렉션을 방문자들에게 소개한다.

또한, 예술적 성과를 창출하며 동시대를 앞서 나가는 작가의 대형작품을 선보여 기존의 페어와 차별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아트페어를 방문하는 다양한 계층의 관람자들을 위해 가상공간 미술전시 체험을 준비했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한 기념품 증정 및 기념사진 프린트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온라인에서도 미술문화 플랫폼 기능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아트광주 본행사과 미술계 소식, 작가페이지 지원을 추진한다.

'아트광주21'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artgwangju.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클라리넷 트리오와 떠나는 '가을 여정'

29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가을의 끝자락을 아름답게 장식할 클라리넷 트리오 무대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4번', '가브리엘 포레의 클라리넷 트리오 D단조', '브람스 클라리넷 트리오 A단조'를 선보인다.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을 졸업했다. 한국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종신수석을 맡으며 세계적인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국내의 유수 오케스트라와도 수차례 협연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첼리스트 박경욱은 서울대 음대를 수석 졸업했으며 예일대 음대·대학원, 뉴욕 주립대를 졸업하고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현재 브람스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을 맡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음악대 교수다.

피아니스트 박진우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조기 졸업, 독일 데트몰트 음대, 하노버 음대를 졸업했다.

중앙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세련된 음



조인혁 박경욱 박진우 색과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중앙대학교 음악학부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명진기자

우리 시대 '호남학'을 묻고 답하다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학콜로키움'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제1회 '호남학콜로키움'을 새롭게 시작한다.

'광주학콜로키움'이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호남학이라는 사과의 장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호남학콜로키움'은 28일 오후 4시 온라인(Y

ouTube)과 오프라인(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천덕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호남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호남의 사상과 역사, 호남문화의 정체성, 호남인의 자존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호남학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토

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그간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수행한 과업들을 중심으로 '호남학'을 둘러싼 담론을 함께 풀어보며 개선의 길을 모색한다.

'호남학콜로키움'은 광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광주학콜로키움'과 함께 2022년부터는 매월 호남학과 광주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된다. 호남학콜로키움은 전·근대를, 광주학콜로키움은 근·현대를 주제로 다룰 계획이다. /최명진기자

숨 가쁘게 달려 온 일상 속 '작은 심포'

'이인성 케렌시아 특별초대전'...11월6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케렌시아', '투우사' 등 28점 작품 선배 유희·주변적 요소...감각적 이미지 표현

현대인들에게 휴식의 의미는 다양하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잠을 자거나 여행하는 등 바쁜 삶 속 잠깐의 쉼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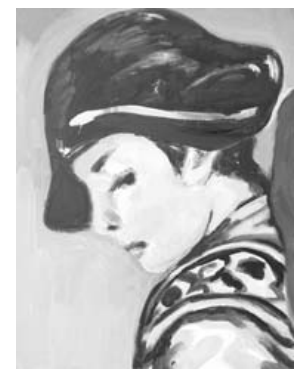
이렇듯 지친 일상 속 작은 심포가 될 특별한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우제길미술관은 오는 11월6일까지 이인성 케렌시아 특별초대전을 개최한다.

이인성 작가는 감각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각광받는 현대작가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총 28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케렌시아'(Querencia)는 사전적으로 애정, 애착 혹은 귀소 본능을 뜻한다. 투우 경기장에선 투우사와의 경기를 앞둔 소가 잠시 쉬는 곳으로 최근 현대인들 사이에는 대피소나 아지트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번 전시는 다듬어가거나 완결형을 위한 작업에서 잠시 벗어나 조금 더 폭넓은 대상의 범위



투우사

와 가벼운 제스처의 작업을 선보인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 속 외부로의 움직임이 줄어드는 반면 자신과 자신의 가까운 범위에 주의를 갖는 시기를 우리는 종종 여러 현상들을 통해 확인한다.

작가는 이러한 배경 속 작업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줬다. 한 곳에 시선을 두고 작업해왔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한다. 유희적이고 주변적인 요소들을 통해 색다른 표현을 이끌어냈다. 그간 정착된 의무적 행위가 아닌 초기 그림을 대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최명진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